

제임스 “지하 4m에 물을 때까지 포기 않는다”



▲ 르브론 제임스. 사진=theathletic.com

르브론 제임스가 “나를 짓밟을 때까지, 내 머리를 자르고 지하 4m 아래에 나를 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나의 자신감이다.”라고 말했다.

3일 ‘마니아타임스’에 따르면 제임스가 이끄는 LA 레이커스는 이를 전 딜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109-104로 패한 후 이렇게 말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만 하면 단기전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이날 현재 레이커스는 최

근 13경기에서 10 패했으며 27승 34패로 서부 콘퍼런스 9위에 올라있다. 11위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 불과 2 경기 앞서 있다. 남은 경기는 21경기로 포틀랜드가 언제든지 레이커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번 시즌 ‘플레이 인 토너먼트’ 컷오프는 10위다. 11위가 되면 그냥 탈락이다.

6위로 정규리그를 마치면 ‘플레이 인 토너먼트’ 없이 곧바로 플레이오프에 진출, 3위와 1라운드 경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7, 8, 9, 10위를 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플레이 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한다.

레이커스가 정규리그를 6위로 마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6위 텐버 너기츠에 9경기 차로 뒤져 있기 때문이다. 설사 레이커스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통과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해도 1라운드를 통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게 NBA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제임스의 발언은 비현실적인 ‘호기’에 지나지 않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한 MLB 정상 개막 무산 … 노사합의 최종 실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노사합의에 최종 실패하며 정상 개막이 결국 무산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이날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노사협정(CBA) 개정을 위한 최후의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개막 연기를 공식 통보했다. 또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 메인 페이지에 ‘야구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개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MLB 사무국은 개막 이후 두 시리즈를 취소했다. 팀당 6경기가 사라지는 것으로, 올해 정규시즌은 팀당 162경기에서 156경기로 축소된다. 사무국은 추후 협

상 추이에 따라 취소 경기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도 보였다. 메이저리그 시즌 일정이 노사분쟁으로 축소된 것은 1995시즌 4월 선수노조의 파업 이후 27년 만이다.

메이저리그는 앞서 5년간 유효했던 CBA 개정에 실패하며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직장폐쇄(록아웃) 상태로 스프링캠프 진행도 미뤄왔다. 개막까지는 시즌 준비를 위해 최소 4주가 필요하다는 게 사무국의 계산이다. 이날은 정상 개막을 위한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이었다.

이날 사무국은 선수노조의 제안에 대해 ‘최종 제안’ 이란 이름으로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사치세부과 기준과 최저 연봉 등에서 입장 차를 끌내 좁히지 못했다.

조던 NBA 데뷔전 입장권, 경매 최고가 경신



▲ 46만8천 달러에 낙찰된マイ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데뷔전 입장권. 사진=ha.com

‘농구황제’マイ클 조던의 NBA 데뷔 경기 입장권이 스포츠 티켓 최고 낙찰가를 경신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1984년 조던의 NBA 데뷔전 입장권은 지난 28일 헤리티지 옵션스에서 열린 경매에서 46만8,000달러에 낙찰됐다. 이 티켓은 마이크 콜 퀴니피액 대학 입학처장이 가지고 있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시카고 불스 팬이었던 콜은 1984년 조던 데뷔 경기 당시 시카고 불스의 경기를 처음 관람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때 아버지로부터 두 장의 입장권을 선물 받았다.”며 “당시 함께 보러 갈 사람을 찾지 못해 혼자 경기를 보고, 한 장은 보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티켓을 보면 가족들과 보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매우 즐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권 한 장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전문매체 ESPN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스포츠 물품 경매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 경매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이 지하실로 내려가서 과거 스포츠 티켓 등을 찾았다.”며 “오래된 추억이 이제 로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26만4,000달러에 판매된 조던 데뷔전 입장권의 반쪽이 스포츠 물품 경매 최고가에 오른 바 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